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조예진** · 주해원*** · 현명호****

초 록

본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에 근거하여, 부정적 양육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 경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된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KCYPS)의 중1 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중2-고1 시점 자료(총 2311명)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양육경험과 비행피해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두 변수 모두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양육 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 경험 모두 시간에 따른 발달궤적에 있어 유의한 개인차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위축 초기치는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와 비행피해 초기치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변수들 간 횡단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부정적 양육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동 시점에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비행피해에 노출될 확률을 높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 초기치는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와 비행피해 변화율 간의 관계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종단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비행 피해에 미치는 부정적 양육의 영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함을 의미한다. 위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청소년 비행피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hyunmh@cau.ac.kr

I. 서 론

1. 문제 제기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만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민한 발달단계에 속한다.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 발달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안귀여루, 2010),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면서(이은성, 2003; 현상운, 2003) 존재론적인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적 특수성으로 청소년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부정적 사건에 의한 심리적 타격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Mccormick, Mathews, Thomas & Waters, 2010).

이 시기는 특히 부모나 또래 관계와의 상호작용에 민감한 시기로서, 타인의 인정과 수용,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Due et al., 2005). 이들은 사춘기 때 겪는 심각한 거절이나 대인간 갈등 경험을 외상(trauma)으로 받아들였으며,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괴롭힘 경험을 외상 경험 중 2위(16%)로 보고하기도 하였다(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위와 같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 적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Seeds, Harkness & Quilty, 2010).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적응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학대나 방임, 비행 피해와 같은 관계적 외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정적 양육 경험과 비행피해 경험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밝히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위축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1)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과거에 비해 점차 저 연령화되며(진혜민, 배성우, 2012), 그 방법 역시 더욱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고, 전기줄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학생에게 잔혹한 폭력을 범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일보, 2012). 이처럼 청소년의 폭력적인 행동은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행피해란 앞선 사례에서 살펴본 ‘폭행 당하기’, ‘돈이나 물건 빼가기’ 뿐만 아니라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 따돌림 당하기, 협박 당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종원 외, 2013). 이는 다양한 형태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기능을 손상시킨다. 대체로 비행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아 위축되고(Due et al., 2005), 사회적 유능감이 떨어져(정하은, 전종철, 2012) 이후에도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Bifulco, Schimmenti, Jacobs, Bunn & Rusu, 2014). 또한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우울, 불안 등 만성적인 내현적 문제를 경험하고(김현숙, 2013),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2000).

나아가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자살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이처럼 비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42.1%가 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였으며, 이들 중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2012년 49.3%에서 2013년 56.1%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또한 청소년기에 비행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증 및 불안증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이완정, 정혜진, 2010)는 비행 피해 경험이 개인의 정신에 미치는 중단적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부정적 양육 경험

부모로부터의 양육 경험은 청소년 비행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이춘재, 곽금주, 2000; 정익중, 2008; 정혜원, 박성훈, 2010). 이는 청소년의 성격 발달과 사회적 행동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또래 관계와 사회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익중, 2008). 먼저 부모로부터의 지지적 양육 경험은 청소년의 위축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그들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정아, 2011). 또한 수용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사회성이 좋으며, 또래 관계도 적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김유자, 백용매, 2000).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고 권위적인 부모는 아이에게 냉담하고 덜 온정적인 측면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며 주눅 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김귀연, 김정연, 2005). 또한 지나친 체벌이나 일관성 없는 양육은 아이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하며(Kim & Cicchetti, 2010),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보고가 있다(정동숙, 2014). 특히 학대를 받은 아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Pollak, 2008), 방임을 당한 아이는 공감능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정서교류에 어려움을 표출하였다(Kim & Cicchetti, 2010).

이처럼 학대, 방임 등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받고 자란 아이는 대개 자신감이 없고, 또래 관계에 부적응하여 비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박은주, 최말옥, 2014; 정하은, 전종설, 2012; Bifulco et al., 2014; Day et al., 2013; Fergusson & Lynskey, 1997; Kim & Cicchetti, 2010; Shields & Cicchetti, 2001; Zurbriggen, Gobin & Freyd, 2010). 더불어 부정적 양육 경험은 그 자체로 청소년기 발달에 위험 요인임과 동시에 비행피해 가능성을 높여 2차적인 위험을 양산한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3) 사회적 위축

부정적인 양육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매개 변인 중 하나로 사회적 위축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이란 주변 사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움츠러들고 주눅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안귀여루, 2010). 이들은 대개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특성을 지닌다(이종원 외, 2013). 위축된 사람은 대개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권석만, 김지영, 2002), 특히 학대 혹은 방임을 받은 경우(김혜영, 2000)와 연관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덜 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위축 행동을 보였는데(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3; 안귀여루, 2010),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정익중, 2008).

위축된 성격은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비행피해의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대개 위축된 아이는 자존감이 낮으며(Boulton & Smith, 1994), 아무도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신성웅 외, 2000). 이러한 특성은 또래의 업신여김과 거부를 초래하여 또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oie, Dodge & Coppotelli, 1982), 비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게 만든다(정하은, 전종철, 2012; 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Rubin et al., 2009).

3.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를 종합하자면, 부정적 양육 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처럼 위축된 아이는 비행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세 변인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다면 청소년 폭력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연구가 횡단적으로 연구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닌다(김현숙, 2013; 장안식, 2013). 그러나 청소년기는 급격한 발달의 시기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횡단 연구보다는 변인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는 종단 연구가 더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비행피해 경험, 학대와 방임 같은 변수는 한 시점에서만 경험했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Seeds et al., 2010) 종단 연구를 통한 명확한 관계 추론이 필수적이다(박은주, 최말옥,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 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발달 궤적을 보이는지, 여기에 개인차가 존재하는지를 탐구하고,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피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정적 양육 경험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는지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개의 연령 코호트(초1, 초4, 중1)를 대상으로 조사를 계획한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는 다단계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선정된 학급의 학생과 보호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1 패널의 2차년도(중2)부터 4차년도(고1)까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총 2351사례가 조사되었으나 2차, 3차, 4차 년도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사례 40명을 제외하여 총 2311사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측정도구

1) 부정적 양육 경험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 자료 중, 학대 척도와 방임 척도를 합산하여 부정적 양육 경험 변수를 구성하였다. 패널조사의 학대 척도와 방임 척도는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것이다.

학대 척도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의 4문항으로, 4점 척도(1=매우 그런 편이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문항을 역채점하였으며, 따라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1 시점에서 학대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50였다.

방임 척도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등의 4문항으로, 4점 척도(1=매우 그런 편이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고1 시점에서 방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18 이었다.

학대 척도와 방임척도를 합산한 부정적 양육 경험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고1 시점에서 .756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위축

패널조사의 사회적 위축 척도는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 수정을 거쳐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해 한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1=매우 그런 편이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위 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며, 이 척도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1 시점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4였다.

3) 비행피해

비행피해 변수는 패널조사의 일탈 및 비행 관련 항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뺑 뜯기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구성 문항은 2점 척도(1=있다, 2=없다)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위 문항을 역 채점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피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적 양육 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 정도가 각각 어떠한 발달 궤적을 보이는지, 또한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보이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중2-고1 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잠재 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3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 변화 모델과 선형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였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을 고려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초기치와 기울기 요인을 추정함에 있어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척도의 평균값을 사용하고(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완전 정보 최대 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으로 결측치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또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도구는 SPSS 19.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세 시점 간 측정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1

부정적 양육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중2 부정적 양육경험									
2. 중3 부정적 양육경험	.470**								
3. 고1 부정적 양육경험	.394**	.484**							
4. 중2 사회적 위축	.121**	.089**	.071**						
5. 중3 사회적 위축	.130**	.172**	.099**	.464**					
6. 고1 사회적 위축	.085**	.109**	.134**	.464**	.501**				
7. 중2 비행피해	.079**	.066**	.086**	.085**	.082**	.064**			
8. 중3 비행피해	.041	.069**	.114**	.061**	.096**	.029	.319**		
9. 고1 비행피해	.004	.035	.030	.017	.038	.048*	.114**	.167**	
평균(M)	1.857	1.842	1.803	2.239	2.262	2.235	1.031	1.017	1.004
표준편차(SD)	.4852	.4832	.4322	.7063	.7378	.6916	.0948	.0778	.0351

* $p < .05$, ** $p < .01$.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세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양육경험과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의 상관은 각 시점에서 대체로 유의하였다. 다만 비행 피해는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았으며, 고1 시점에서는 특히 더 낮은 양상을 보였다.

2. 변인 별 단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은 시점이 세 개이므로, 선형 모형(그림 1)과 무 변화모형(그림 2)을 경쟁모형으로 선택하였다(홍세희, 2015). 선형 모형은 세 시점에서의 변화가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무 변화모형은 변화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거나 변화의 정도가 유의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적합하다(서미정,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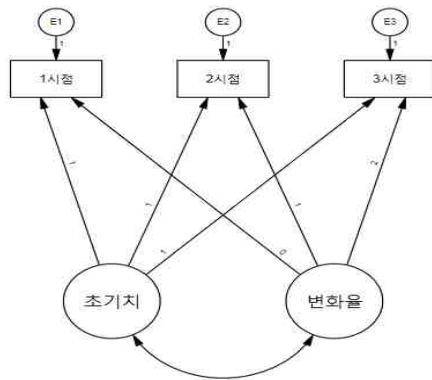


그림 1. 선형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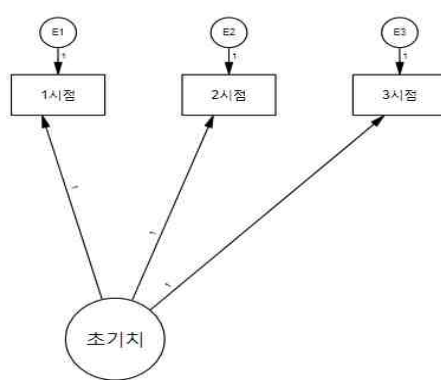


그림 2. 무 변화 모형

1) 모형 경쟁

각 변인들의 궤적을 최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찾기 위해 위 변인을 무 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에 적용시켰으며, 모형 경쟁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양육경험과 사회적 위축의 경우 무 변화 모형의 적합도도 좋았으나, 선형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였으므로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형 모형을 설정하였다. 비행피해의 경우 무

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반면, 선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하여 최종 분석 모형으로 선형 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2

부정적 양육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부정적 양육경험 무 변화	57.472***	4	.934	.956	.076
부정적 양육경험 선형	1.319	1	.998	1.000	.012
사회적 위축 무 변화	10.170**	4	.993	.995	.026
사회적 위축 선형	3.240*	1	.990	.998	.031
비행피해 무 변화	362.475***	4	-.786	.000	.197
비행피해 선형	.479	1	1.010	1.000	.000

* $p < .05$, ** $p < .01$, *** $p < .001$.

2) 각 변인의 발달궤적 추정

표 3과 같이 중1 패널이 중학교 2학년 때 인지한 부정적 양육 경험, 즉 집단의 초기치 평균은 1.861($p < .001$)로 유의하였다. 또한 집단의 변화율 평균 또한 -.027($p < .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인지한 부정적 양육경험이 매 해가 지날수록 -.027씩 감소하여 마지막 시점에는 1.807 정도를 나타낼 것임을 보여준다.

초기치 변량은 .137($p < .001$), 변화율 변량은 .023($p < .001$)으로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2 시점에서 청소년이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초기치와 변화율 간에는 부적 상관($r = -.483$, $p < .001$)이 있었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중2)에서 부정적 양육경험을 높게 인지한 청소년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한 부정적 양육경험이 더 빨리 감소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의 초기치 평균은 2.246($p < .001$)으로 유의하였다. 변화율 평균은 -.003으로, 평균적으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초기치의 변량 .256($p < .001$)과 변화율의 변량 .022($p < .001$)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2 시점에서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위축감이 변화하는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 비행피해의 초기치 평균은 1.030($p < .001$)으로, 변화율 평균은 -.013($p < .001$)으로 둘 다 유의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비행피해가 해가 지날수록 -.013씩 감소하여, 고1 때는 약 1.004 정도를 나타낼 것임을 보여준다. 초기치 변량 .004($p < .001$)과 변화율 변량 .001($p < .001$)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피해 경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부정적 양육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의 발달 궤적 추정치

변수(parameter)	평균(M)	변량(SE)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Intercept)	1.861(.010)***	.137(.009)***
변화율(Slope)	-.027(.005)***	.023(.004)***
초기치-변화율 상관	-.483***	
사회적 위축 초기치(Intercept)	2.246(.014)***	.256(.020)***
변화율(Slope)	-.003(.008)	.022(.009)**
초기치-변화율 상관	-.194	
비행피해 초기치(Intercept)	1.030(.002)***	.004(.000)***
변화율(Slope)	-.013(.001)***	.001(.000)***
초기치-변화율 상관	-.938***	

* $p < .05$, ** $p < .01$, *** $p < .001$.

한 편,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상관은 -.938($p < .001$)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중2)에서 비행피해를 많이 당한 청소년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빠른 속도로 비행피해 경험 정도가 감소하며, 초기에 비행피해를 적게 당한 청소년일수록 더 느린 속도로 비행피해 경험 정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지금까지 부정적 양육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의 발달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나이가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4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였다.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62.765***	21	.970	.986	.02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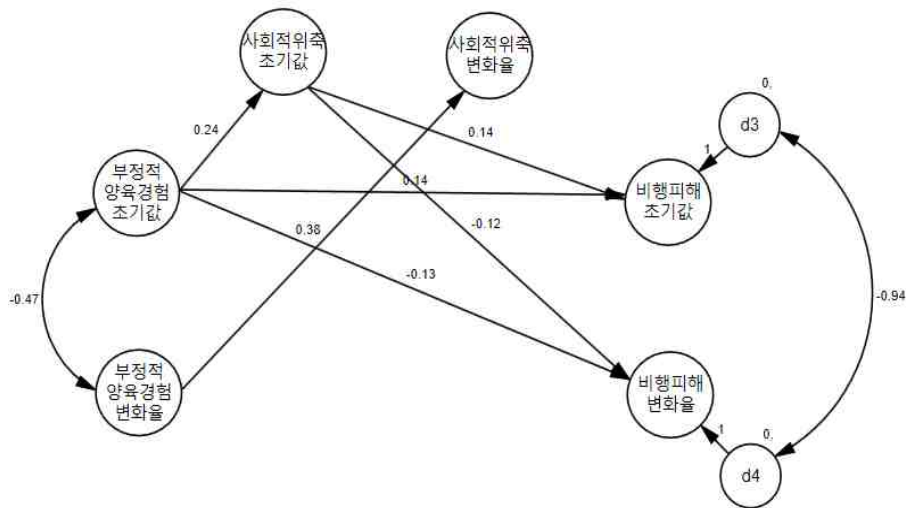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본 연구에서 가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관계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림 3과 표 5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양육경험과 사회적 위축 간의 종단적 관

계는 다음과 같다.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는 사회적 위축 초기치에 .24($p<.001$)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양육경험 변화율은 사회적 위축 변화율에 .38($p<.001$) 만큼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경험 및 사회적 위축과 비행피해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는 비행피해 초기치에 .14($p<.001$)만큼, 비행피해 변화율에 -.13($p<.001$)만큼의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위축 초기치 역시 비행피해 초기치에 .14($p<.001$)만큼, 비행피해 변화율에 -.12 ($p<.001$)만큼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인들의 발달계적 간 관계 추정

변수(parameter)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사회적 위축 초기치 ←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	.24	.33	.048	6.83***
사회적 위축 변화율 ←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	.07	.03	.028	.97
사회적 위축 변화율 ← 부정적 양육경험 변화율	.38	.36	.097	3.65***
비행피해 초기치 ← 사회적 위축 초기치	.14	.02	.005	3.79***
비행피해 초기치 ←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	.14	.03	.007	3.77***
비행피해 변화율 ← 사회적 위축 변화율	.04	.01	.008	.94
비행피해 변화율 ←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	-.13	-.01	.003	-3.16**
비행피해 변화율 ← 사회적 위축 초기치	-.12	-.01	.002	-3.00**
비행피해 변화율 ← 부정적 양육경험 변화율	.02	.01	.006	.79

* $p<.05$, ** $p<.01$, *** $p<.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와 비행피해 초기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 초기치는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였다($Z=3.4574$, $p<.001$). 또한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와 비행피해 변화율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 초기치는 $Z=-4.0437(p<.001)$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부분 매개 관계를 지지하였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결과

매개경로	a	b	Z_{at}
	Estimate (SE)	Estimate (SE)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 사회적 위축 초기치 → 비행피해 초기치	.33(.048)	.02(.005)	3.4574***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 사회적 위축 초기치 → 비행피해 변화율	.33(.048)	-.01(.002)	-4.0437***

* $p<.05$, ** $p<.01$, *** $p<.001$.

IV. 논 의

앞서 살펴본 부정적 양육경험, 비행피해, 사회적 위축은 모두 청소년기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험요인이다. 또한 그 영향력이 한 시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장기적 피해를 야기한다(이완정, 정혜진,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위 세 변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며, 이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양육 경험과 비행피해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초기치가 높을수록 더 급하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부정적 양육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청소년이 고학년이 됨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학대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양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비행피해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권재기(2011)와 장안식(2013) 등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둘째, 부정적 양육경험,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 세 변인의 변화 양상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위축에서는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변화를 평균은 유의하지 않으나 그 변량이 유의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홍세희, 2015). 변화를 평균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중2-고1 기간 동안,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위축의 정도를 설명해 줄 하나의 패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변량이 유의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위축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위축이 주변 환경이나 개인적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심리적 변수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따라서 또래 친구의 지지나 교사의 관심 등이 적시에 주어질 경우,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는 사회적 위축 초기치를 매개로 하여 비행피해 초기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동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비행피해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비행 피해를 더 많이 당한다는 선행연구(박은주, 최말옥, 2014) 결과를 지지한다. 즉,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 유능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는 주눅감과 위축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하여 비행의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연구결과로, 부정적 양육경험 초기치는 사회적 위축 초기치를 매개로 하여 비행피해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2 시점에 부정적 양육을 더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그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며 고1까지 지속되는 피해의 감소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2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양육된 청소년이 비행피해를 더 많이 당했으나, 고1 시점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1 시점에 접어들면서 비행피해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역시 점차 낮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피해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의 진학 시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중3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시기로, 가해자가 학업에 보다 집중하거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비행에 상대적으로 덜 관여하였을 수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 다양한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레 비행피해 정도를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부정적 양육이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은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호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청소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애정과 관심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확장된 자아와 세계관을 형성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 비행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였음을 조심스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 경험이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위축이라는 위험요인의 역할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효율적인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적 양육 경험이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보호요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위 변인들의 발달궤적을 추정함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학대와 방임(김혜금, 2014; 정익중, 이지언, 2012), 비행피해(김현숙, 2013; 정익중, 이지언, 2012) 등의 부정적 영향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성별이 위 세 변인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2부터 고1까지의 시점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커다란 환경적 변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순수한 변인 간의 관계 추정을 방해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중1-중3, 고1-고3과 같이 환경적 변화가 없는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진학시기를 중심으로 변인의 발달궤적이 비선형으로 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이 3개이므로, 무 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만을 경쟁모형으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4개 이상의 시점으로 고차 함수를 활용하여 궤적 추론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비행 피해의 심각도를 나타내기 위해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즉, 6가지 종류의 피해를 한 번도 안 당한 경우(0)부터 모두

당한 경우(6)로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비행의 심각도를 피해종류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 피해를 측정하는 도구로, 폭력 지속 기간 혹은 이로 인한 신체, 심리적 상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피해의 심각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정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이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행 피해 측정 항목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범주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폭행과 성희롱은 다른 피해와 성격이 상이하고, 피해 정도나 발달 양상도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정적 양육 경험이 어떠한 유형의 폭력에 더 취약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이 시간에 따라 지속되는지 여부를 중단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청소년기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중단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부정적 양육과 비행 피해라는 두 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아 청소년 문제 및 정신건강 증진의 개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연구 대부분이 주로 가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장안식, 2013), 본 연구는 피해자 특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비행피해 청소년의 가족 변인 및 성격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비행피해 위험군을 미리 보호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 내 학대와 방임 같은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비행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러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스크리닝과 개입이 요구된다.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며, 양육자의 이러한 행위가 엄연한 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역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매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위축된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시도하여야 한다. 위축된 아이는 학급 내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하며, 이에

다른 교사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이가 비행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중2에서 고1로 갈수록 비행 피해를 겪는 청소년 수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대처가 더 시급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학교 교육현장에 사회적, 정책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권세원, 이동은, 장은혜, 한기주 (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중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205-231.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잠재계층 성장분석 (LCGA), 다집단 성장혼합모형 (GMM) 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96-127.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 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 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3).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4), 85-100.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자, 백용매 (2000).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3(1), 139-160.
- 김현숙 (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 김혜금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또래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2(1), 11-19.
- 김혜영 (2000).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 **한국아동복지학**, 10(1), 9-31.
- 박은주,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서미정 (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787-816.
-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 (2000).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124-143.
- 안귀여루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99-108.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완정, 정혜진 (2010). 아동청소년기 폭력노출경험과 대학생의 정신건강. **아동과 권리**, 14(3), 385-407.
- 이은성 (2003).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외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춘재, 박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장안식 (2013).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발달적 변화. **한국범죄학**, 7(1), 61-82.
- 정동숙 (2014).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 이지연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정혜원, 박성훈 (2010). 청소년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의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81, 149-173.

- 중앙일보 (2012.6.28).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징역형.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602656&ctg=에서 2015년 3월 12일 인출.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정아 (2011).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지지, 자아통제력,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사회과학연구**, 27(3), 189-21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현상운 (2003). **사춘기 청소년의 불안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15). **양적변화 자료 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서울: 에스앤엠 리서치 그룹.
- Bifulco, A., Schimmenti, A., Jacobs, C., Bunn, A., & Rusu, A. C. (2014). Risk factor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bullying victimization: A community-based study. *Child Indicators Research*, 7(3), 633-648.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315-329.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Day, D. M., Hart, T. A., Wanklyn, S. G., McCay, E., Macpherson, A., & Burnier, N. (2013). Potential mediators between child abuse and both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 juvenile offenders. *Psychological Services*, 10(1), 1-11.
- Due, P., Holstein, B. E., Lynch, J., Diderichsen, F., Gabhain, S. N., & Scheidt, P. et al. (2005). Bullying and symptoms among 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comparative cross sectional study in 28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 Public Health*, 15(2), 128-132.
- Fergusson, D. M., & Lynskey, M. T. (1997). Physical punishment/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and adjustment in young adulthood. *Child Abuse & Neglect*, 21(7), 617-630.
- Kim, J., & Cicchetti, D. (2010).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peer relations,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6), 706-716.
- McCormick, C. M., Mathews, I. Z., Thomas, C., & Waters, P. (2010). Investigations of HPA function and the enduring consequences of stressors in adolescence in animal models. *Brain and Cognition*, 72, 73-85.
- Pollak, S. D. (2008). Mechanisms linking early experience and the emergence of emotions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maltreated childre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6), 370-375.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eeds, P. M., Harkness, K. L., & Quilty, L. C. (2010). Parental maltreatment, bully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Evidence for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5), 681-692.
-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3), 349-363.
- Zurbriggen, E. L., Gobin, R. L., & Freyd, J. J. (2010). Childhood emotional abuse predicts late adolescent sexual aggression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2), 204-223.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Cho, Yejin* · Ju, Haewon* · Hyun, Myoungho*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which exist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maltreatment/neglect), social withdrawal,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ce using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The participant sample was taken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and the data of 2,311 adolescents in the period between 8th and 10th grade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trajectorie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have shown to follow a decrease over time. Additionally, all three variables represente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in terms of initial value and rates of change. Furthermore, the initial value of social withdrawal was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initial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victimization. Moreover, the initial value of social withdrawal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the rate of change in victimization.

Key Words: parenting attitudes, social withdrawal, adolescent victimiza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kcyps

투고일: 2015. 3. 15, 심사일: 2015. 4. 29, 심사완료일: 2015. 5. 13

* Chung-Ang University